

杜門洞 72현 일화 연구*

- 전승의 경과와 수용의 양상을 중심으로 -

황재문**

- 1. 서론
- 2. 조선 후기 두문동 재발견의 경과
- 3. 읍지에서의 두문동 일화 수용의 성격
- 4. 詩材로서의 두문동 일화 수용의 의미
-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려의 망국과 함께 은거한 두문동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선 후기에 와서 재조명된 경과를 살피고, 읍지에 수록되거나 한시의 소재로 활용되었을 때의 수용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두문동 72현은 1740년 영조의 개성 방문을 통해 재발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려 충신의 자취를 찾겠다는 국왕의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왕이 12명의 신하와 함께 두문동의 충신들을 기리는 시를 읊고 비석을 세우며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두문동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헌, 특히 읍지에서의 수용의 경우에는 전승되던 설화 가운데 두문동의 인물들이 살해당했다는 등의 요소는 약화된 채, 일화로 정착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컨대 조선의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충신의 형상으로 한정된 일화가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한시를 비롯한 문학 작품에서는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8-361-A0000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은거를 통해 충절의 이미지를 강조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 왕조의 이주 정책에 반발했다거나 조선에서 특별히 베푼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대목조차 거론하지 않거나 약화시켰다.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한 사례도 찾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망국이라는 상황 자체의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두문동 인물들의 자결이나 살해와 같은 요소는 다루지 않았다. 두문동 72현 일화의 수용이나 전승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거시적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가문들의 노력이나 일제강점기 이후의 두문동에 대한 관심 또는 인식의 변화까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두문동, 충절, 은거, 영조, 일화

1. 서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일은 역사에서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전란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없었다 할지라도, 500년을 이어 온 왕조의 종말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나 그에 따른 비극적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정몽주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면 오늘날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뒤이어 건국한 조선이 500년 이상 지속되는 과정에서 고려 또는 고려 유민들의 저항과 관련된 사건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성 지역에서의 구비전승에 초점을 맞추면, 조선의 창업에 저항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邑誌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서 이른바 ‘두문동 72현’ 이야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문동 72현은 고려가 망한 후에 조선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은거하였다고 하는데,¹⁾ 이들의 사적은 18세기 중반

1) 두문동 72현의 구성원과 은거의 과정, 그리고 은거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후, 관련 가문에서 편찬 또는 간행한 수 십 종의 문집 및 실기류 문헌에도 수록되었다.²⁾

두문동 72현의 이야기가 개성 지역에서만 전승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의 시나 산문에서 두문동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문에서 두문동을 언급한 이유나 맥락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려의 마지막을 장식한 충신들의 절의를 두문동을 통해 찾아내고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개성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던 이야기가 어떻게 개성 이외의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 또 다양한 문헌에 일화로 수용될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설화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기호와 같은 요소들이 관계될 수 있겠지만, 두문동 관련 일화의 경우에는 국왕의 관심을 중요한 원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선 국왕 영조가 개성을 방문하여 관심을 표명한 이후에, 두문동에 대한 언급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항의 이야기가 금기시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문동 72현의 일화와 이를 수용한 작품을 검토하고자 한다.³⁾ 첫째는 두문동 관련 일화가 재발견된 배경을 검토하고 당시에 소개된 일화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는 두문동 관련 일화를 다룬 작품에서의 형상화 양상을 살피고, 그 맥락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조선 시대에도 문헌에 따라 차이가 보이며, 오늘날에도 이에 대해 확립된 정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문동 72현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홍명희, 『杜門洞史蹟』, 『현대평론』 제2호, 1927 ; 김정자, 「소위 '杜門洞 72賢'의 정치성향」, 『釜大史學』 15·16합집, 1991 ; 김정자, 「두문동 72현의 선정인물에 대한 검토」, 『釜大史學』 22집, 1998 ; 구본욱, 「두문동 72현과 송은 구홍의 절의정신」, 『퇴계학과 한국문화』 37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5.

2) 김정자(1998), 위의 논문, 102쪽의 <표1>에는 27종의 관련 문집 목록을 제시하고 수록 내용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18세기에 간행된 『포은집』(1769), 『철감록』(1774) 등이 이른 시기의 문헌이며, 20세기 이후에 간행된 사례도 적지 않다. 김정자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楊若齋先生實紀』(소장기호 : 古 923.251-G429c)는 1971년에 간행되었다.

3) 본고는 두문동 72현의 실체나 진실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의미 있는 연구 과제이겠지만 본고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문헌 자료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구본욱, 위의 논문, 334~340쪽에서는 문헌 편찬 과정에서 의도적인 오류의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다. 이를 통해 조선 왕조의 성립에 저항한 고려 유민의 이야기가 재발견되고 문학 작품에 수용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조선 후기 두문동 재발견의 경과

“두문동 72현”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에 와서 확립된 개념이다.⁴⁾ 특히 실록을 비롯한 문헌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영조 대 이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문동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단서가 영조의 개성 방문에서 마련되기 때문이다. 1740년(영조 16)에 영조는 齊陵과 厚陵을 참배하기 위해 개성으로 향했는데, 이때 不朝峴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9월 1일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1882년에 간행된 개성 읍지인 『中京誌』의 기록이다.

大駕가 제릉을 향하다가 부조현을 지나는데, 그러한 이름을 붙인 뜻이 무엇인지 물으셨다. 모시던 신하가 아뢰기를, “태종께서 과거를 베푸셨는데, [옛 읍지에는 ‘태조께서 과거를 베풀었다’고 하였고, 『국조보감』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고을의 고려조 대족 50여 가문이 과거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그런 까닭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라 하였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군신 간의 의리도 땅을 쓴 듯이 사라진다고 한다. 부조현의 이름 지은 뜻을 들으니, 비록 백 대 이후에라도 사람을 엄숙하게 만들 것이로다.”라 하시고, 친히 ‘부조현’의 세 글자를 써서 그 터에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비석을 살펴보니, ‘高麗忠臣不朝峴’의 일곱 글자는 어필이 아닌데, 『국조보감』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한 구절을 친히 지으시고, 대가를 따르던 신하들에게 聯句를 지어 올리게 하셨다.⁵⁾

4) 김정자(1991), 앞의 논문, 355쪽.

5) 『國朝紀事』, 『中京誌』 권1, 『경기도읍지(7)』,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80~81쪽, “大駕向齊陵, 過不朝峴, 問命名之義. 侍臣對曰, 太宗設科[舊誌云太祖設科, 而國朝寶鑑云然. 未詳], 本都, 前朝大族五十餘家, 不肯赴舉, 故名也. 上曰, 末世君臣之義, 掃地矣. 聞不朝峴之名, 雖百世之下, 猶令人凜然. 親書不朝峴三字, 碑于其墟[按碑面, 高麗忠臣不朝峴七字, 實非親書, 而國朝寶鑑云然. 未如何故.] 御製詩一句, 命隨駕諸臣, 聯句以進.”

영조는 ‘不朝峴’, 즉 ‘조회하지 않은 고개’라는 지명을 접하고, 그 유래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侍臣 가운데 한 사람이 조선 국왕이 배운 과거에 응하지 않으려는 고려의 “大族”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선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한 인물들의 행적을 듣고서, 영조는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도 군신 간의 의리를 지킨 데 대해 칭송했다. 이어서 ‘不朝峴’이라는 어필을 내려 비석을 세우게 하고, 다시 신하들과 함께 시를 지었다고 했다.⁶⁾

한편 영조의 명에 따라 세운 부조현의 비석에는 당시 개성유수였던 金若魯가 쓴 비문이 새겨졌다.⁷⁾ 김약로의 비문에는 개성을 방문한 영조의 활동과 부조현과 선죽교를 찾아 비석을 세운 뜻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영조가 고을의 父老들로부터 부조현의 유래를 들었다고 기록했다.

『승정원일기』에는 보다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가 노정기에 있는 ‘부조현’의 위치와 그 이름을 붙인 뜻을 물었는데, 승지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주서 李會元이 『松都誌』에서 본 내용을 아뢰었다는 것이다. 이에 영조가 부조현을 직접 찾아가도록 명하였고, 7언 1구를 내리면서 <駐駕不朝峴感古事>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도록 한 것이다. 이회원의 답변 가운데는 “그들이 살던 마을에 부조현, 두문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문동’을 함께 말했다는 점에서 『증경지』와는 차이가 있다.⁸⁾

이상의 세 가지 기록에 영조가 부조현과 두문동에 대한 고사를 듣게 된 과정에는 차이가 보이지만, 영조가 여러 신하들 앞에서 부조현에 얽힌 고려 충신들의 일화와 교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사실 영조는 개성 방문 이전에 개성의 고적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으며, 그

6) 『증경지』에서는 『국조보감』 등의 기록을 참고하되 사실과 다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붙여서 밝혀두었다. ‘태조’를 ‘태종’이라고 기록한 오류는 실록에서도 발견된다.

7) 「古蹟」, 『증경지』 권7, 『경기도읍지(7)』, 539~541쪽.

8)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9월 1일조, “又下教曰, 路程記中所謂不朝峴, 在何處, 而命名何義耶. 承旨以未及聞知仰對. 注書李會元曰, 臣適見松都誌, 有云太宗朝設科于本都, 而勝國大族七十餘家, 不赴舉, 名其所居之洞曰不朝峴·杜門洞云矣. 上曰, 聞來不覺起敬, 使本府人先往于峴底, 待駕至後以告事, 分付. 上至不朝峴, 命駐駕, 招承史下教曰, 末世君君臣臣之義, 掃地盡矣. 今聞不朝峴命名之義, 雖累百載之後, 令人凜然如視. 仍命承旨, 書御製七言半句. 遂下教曰, 隨駕承史玉堂聯此句和進, 而以世字叶韻, 題以駐駕不朝峴感古事, 而勅侍臣, 可也.”

과정에서 두문동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⁹⁾ 주위에서 모시던 신하나 개성의 노인들에게 듣거나 노정기를 보고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이 우연적인 상황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특별한 의도를 갖고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일 가능성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영조가 짓도록 한 <駐駕不朝峴感古事>는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중경지』를 비롯한 후대의 읍지에는 수록되어 있다. 영조의 시구인 “勝國忠臣勉繼世”를 포함하면,¹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충신 대대로 계승하기 힘쓰니
 흥망성쇠에 본보기가 뚜렷하네.
 땅은 뛰어난 인물 덕에 아직 이름이 전하고
 마을은 깊은 산에 막혀서 자취가 희미하네.
 덕을 쌓은 주나라는 800년 왕업을 열었고
 어리석고 어두운 진나라는 사직을 잃었네.
 그윽한 두문동엔 좋은 풍속 남았고
 황량한 선죽교는 낮에도 어둑하네.
 인륜을 어찌 당시에만 떠받쳐야 하겠는가,
 아름다운 절개 지금도 드러나야 하리라.
 어리석은 마음은 좋은 신하 되기만 기원하고
 성덕 갖춘 임금은 태평성대 이루기만 생각하네.
 일곱 글자 옥돌에 새기고 돌아오시는 길
 아아, 기리는 말씀을 후세에 전하셨네.
 勝國忠臣勉繼世, 分明鑑戒在興替.
 地因人重名猶傳, 里隔山深跡自翳.
 積累周開八百年, 狂昏秦失萬千計.

9)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8월 1일조, “上曰, 松都有古跡耶. 雖矮屋有前朝時家舍乎. 若魯曰, 似無之矣. 寅明曰, 有杜門洞古跡矣. 上曰, 在於何處乎. 寅明曰, 在於府內, 前朝國亡後, 人皆杜門而死, 故因名焉矣.”

10) 『조선왕조실록』, 영조 44년 11월 9일자 기사에는 “勝國忠臣勉季世”로 되어 있다.

杜門洞邊餘風聲, 善竹橋荒尙晝噓.
奚但舜倫當日扶, 須看懿節至今揭.
愚衷只願爲良臣, 聖德宜思鑄盛際.
七字鑑珉還輦途, 猗歟褒綉詔來裔.¹¹⁾

참여한 사람은 민형수, 김상로, 조명겸, 한사득, 송교명, 이회원, 김한철, 권서동, 홍익삼, 김상직, 정휘량, 남태제 등 12명이다.¹²⁾ 영조의 명에 따라 조선의 관료들이 부조현의 옛 일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바를 함께 표현했던 것이다. 『송도지』의 내용을 아뢰었던 이회원을 제외하면, 다른 인물들은 두문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聯句를 짓게 된 전후의 과정이야말로 두문동의 일화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의 흥망과 신하의 자세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망국의 순간에도 군신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고려의 충신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나라와 진나라를 대비시켜 나라의 흥망에 대한 교훈으로 삼았고, 두문동과 선죽교를 통해 고려 충신의 자취를 찾았다.

영조는 이후에도 두문동에 대해 여러 차례 관심을 표했다. 1745년(영조 21)에는 김약로를 불러 장사치가 되었다는 두문동 후손들을 등용할 방도에 대해 물었고,¹³⁾ 1749년(영조 25)에는 왕세자에게 두문동 인물들의 행적이 백이나 숙제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¹⁴⁾

1751년(영조 27)에는 두문동의 충신 72인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명하고 祭文을 내리는데, 이는 徐宗伋이 올린 장계로 인한 것이었다. 영조는 9월 27일에 서종급을 불러들여서 두문동 충신의 후손이 남아 있는지를 묻고, 다시 어필을 내려서 두문동에 비석을 세우도록 하였다. 영조는 어필을 직접

11) 「題詠」, 『중경지』 권7, 570~571쪽.

12) 마지막 두 구는 남태제가 지었으며, 다른 사람은 각기 1구씩을 지어서 올렸다.

13)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7월 12일조.

14)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2월 17일조, “上謂王世子曰, 高麗忠臣, 與夷齊之心無異. 勝國之時, 世祿之臣, 多有立節者矣.”

새기게 되면 碑閣을 만들어야 하므로 백성들에게 해가 될까 근심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¹⁵⁾ 영조가 내린 어필은 “勝國忠臣今焉在, 特豎其洞表其節(고려의 충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특별히 그 마을에 세워 그 정절을 밝힌다)”의 14자였다. 이로써 부조현에 이어 두문동의 터에도 영조의 어필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10월 11일에는 제사에 대한 택일을 하여 보냈고,¹⁶⁾ 12월 4일과 7일에는 비석의 陰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하였다.¹⁷⁾

1751년의 두문동 비 건립 및 제사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72忠”이라는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72’라는 숫자는 공자의 제자 72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⁸⁾ 구체적인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무렵의 기록에는 曹義生, 林先味, 그리고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孟氏의 세 사람만이 언급된다. 이들의 자손을 찾아서 등용하라는 명령을 거듭 내렸고 실제로 등용되는 이도 있었지만, 아직은 ‘두문동 72현’은 72명의 인물이라기보다는 고려의 충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이후에는 두문동 관련 인물의 배향 및 추송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 단초가 된 것은 1783년에 개성유수 徐有防이 올린 상소이다. 서두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충절을 포상하고 절의를 권장함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무릇 前朝의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잡아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모두 열성조의 褒獎하는 은전을 입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원사에 배향하고 정려를 세운 일이 곳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문동 태학생 72인은 우뚝한 충절이 진실로 정몽주나 길

15)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9월 27일조, “上覽松都狀啓畢, 因命留守入侍. 留守徐宗伋入侍. 上曰, 杜門洞七十二忠, 予甚嘉之. 其子孫有幾人耶. 宗伋曰, 七十二人中子孫, 只有林·曹兩姓而已. 其餘皆不知矣. … 上曰, 當於杜門立表, 以記實其忠節, 可也. 而卿未乎. 宗伋曰, 不可私自主張, 故敢稟耳. 上曰, 卿須親往杜門, 看檢立表後, 刻以杜門洞中高麗諸忠臣之靈, 則好矣. 因賜御筆十四字曰, 以卿手書刻之, 勿庸御筆, 可也. 若庸御筆, 則必爲碑閣矣. 此亦有弊也. 泰耆曰, 不然, 以御筆刻之, 然後松都之人, 亦必感動矣. 上曰, 依爲之.”

16)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10월 11일조.

17)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12월 4일조 및 12월 7일조.

18) 김정자(1998), 앞의 논문, 101쪽; 구본옥, 앞의 논문, 323~325쪽.

제 같은 현인들의 성취에 부끄러울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72인 가운데 성명이 전해지고 있는 사람은 조의생, 임선미와 맹가의 세 사람 뿐입니다. 맹가는 성만 전하고 이름은 전하지 않았습니 다. … 이 고을에는 崇節祠가 있습니다. 고 부사 송상현, 고 부사 김연광, 부원수 유극량은 이 고장에서 나고 자라서 임진년에 순절한 사람들인데, 조정에서 사액하여 제향을 차리게 한 곳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 새 서원을 창립할 것 없이 승절사에 세 사람[조의생, 임선미, 맹가]까지 아울러 향사하게 한다면, 절의를 지킨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게 되어 진실로 사체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該曹에 명하여 품처하게 하시 기 바랍니다.¹⁹⁾

두문동의 72인 가운데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세 사람을 승절사에 배향하도록 청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승절사는 임진왜란 때 절의를 지킨 송상현, 김연광, 유극량의 세 사람을 모신 사당인데, 여기에 고려 말에 절의를 지킨 두문동의 인물들을 함께 모시자는 것이다. 정조는 상소한 바대로 시행하라는 비답을 내렸는데, 7월 26일에는 이를 고쳐 學宮의 곁에 별도의 사우를 세우도록 하고한다. 이를 근거로 건립된 것이 表節祠인데, 이후 순조대에 成思齊(1808), 朴門壽(1810), 閔安富, 金冲漢(1822)이 추가되어 모두 7인의 두문동 인물들이 배향된다.²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문동 태학생 72인(杜門洞太學生七十二人)”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영조대 기록에서의 “고려조 대족 50여 가문(前朝大族五十餘家)”이나 “두문동의 72충신(杜門洞七十二忠)” 등과 비교하면, 이 표현은 해당 인물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개성부의 인사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개성유수가 발언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문동

19) 『조선왕조실록』, 정조 7년 7월 14일조, “開城府留守徐有防上疏曰, 褒忠獎節, 有國大政. 凡係前朝人秉義立殲之地, 皆蒙列聖朝褒獎之典, 故院祠之享, 棹楔之舉, 在在相望. 獨杜門洞太學生七十二人, 卓卓忠節, 實無愧於鄭夢周·吉再諸賢之成就, 而七十二人中, 傳其名者, 有曹義生·林先味·孟姓三人, 而孟則傳姓而不傳名. … 本府有崇節祠. 故府使宋象賢, 府使金鍊光, 副元帥劉克良, 生長此土, 節死壬辰之人, 而朝家賜額設祭之處也. 臣意, 則今不必創立新院, 就此一祠, 竝享三人, 則節義咸萃, 事面允當, 乞命該曹稟處焉.”

20) 구본옥, 앞의 논문, 345~346쪽.

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구체화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필 비각을 중건하도록 한 고종대의 논의 정도를 제외하면,²¹⁾ 순조대 이후에는 두문동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약화된 듯이 보인다. 반면 표절사의 건립과 두문동 72현 중 7인의 배향 이후에 관련 가문들의 활동은 활발해진 듯하다. 문집 및 실기류의 편찬이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²²⁾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왕에 의해서 재발견되고 확산된 두문동 이야기가 관련 가문의 영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문동 72현의 추모 사업은 근대 이후에도 이어졌다. 1929년에는 관련 가문 자손들이 모여 두문동에 慕忠院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이 용직, 민병석 등 70여 인을 발기인으로 하고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하였으나, 이용직이 발기인에 참여한 일이 없다고 부정하고 총독부에서도 허가하지 않았다.²³⁾ 1932년에는 ‘개성 유지’들을 중심으로 두문동 祠院의 건립이 추진되었는데, 기부금품의 모금과 관련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신문에 실렸다.²⁴⁾ 1933년에 기공하여 1934년에 준공된 이 사원에는, 두문동 72현 55인과 고려 말의 충신 64인 등 총 119위를 봉안하였다.²⁵⁾ 관련 가문과 지역의 시각에서 두문동의 충신들에 대한 발굴 및 추모 사업을 진행한 것이겠는데, 국왕이 직접 사회적인 논의를 이끌었던 영조대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읍지에서의 두문동 일화 수용의 성격

1740년 영조에 의해 이루어진 두문동 관련 사적의 공론화는, 개성 지역

21) 『조선왕조실록』, 광무 7년 5월 6일조 및 19일조.

22) 김정자(1998), 앞의 논문, 102쪽의 <표1>.

23) 『동아일보』, 1929년 7월 3일자 ; 7월 7일자 ; 11월 20일자.

24) 『동아일보』, 1932년 2월 13일자 ; 4월 20일자 ; 5월 10일자 ; 7월 10일자 ; 7월 19일자 ; 8월 24일자 ; 9월 4일자 ; 11월 2일자 ; 11월 27일자 ; 1933년 3월 19일자.

25) 구본욱, 앞의 논문, 348~349쪽.

에서 전승되던 관련 일화를 재조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조현’이나 ‘두문동’과 같은 지명이 남아 있고, 지명과 관련하여 구전되는 설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조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관심을 구전 설화에 둔다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서 기록한 내용은 원래의 설화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래의 설화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개성의 읍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조에게 부조현과 두문동의 유래를 설명한 이들이 읍지에 자세하다거나 읍지에서 이러 저러한 내용을 보았다는 말을 덧붙인 것을 보면, 읍지에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성의 읍지는 유수로 부임한 이들에 의해 여러 차례 편찬되었는데, 이 과정은 『중경지』 서두에 실린 序跋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²⁶⁾ 이를 통해 10차례 정도의 읍지 편찬 또는 증보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 1648년에 김육이 편찬한 읍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육은 개성 사람 조신준의 『松都雜記』와 『동국여지승람』류를 참고하여 읍지를 펴냈다고 했는데,²⁷⁾ “吟風咏月하는 글이나 잡스럽고 무용한 말”은 수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사문고본 『松都志』가 이 책일 가능성이 높은데,²⁸⁾ ‘인물’ 조의 서술 가운데 두문동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1] 조선이 개국한 뒤에 도읍을 옮겨 남쪽으로 가니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종신토록 나오지 않기도 했는데, 이를 일러 ‘두문동’이라 한다. 태조가 친히 가서 과거를 베풀고 정성을 다하여 깨우치며 장

26) 『중경지』 서두에 실린 서발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는 서발의 저자와 작성 연대를 기록하였다. 中京舊誌序(김육, 1648), 舊誌跋(이돈, 1700), 舊誌跋(엄집, 1705), 續誌跋(오수채, 1757), 小識(정창순, 1782), 補遺序(서유방, 1783), 補遺跋(윤돈, 1785 : 서유방 수정본의 발문), 續誌序(김문순, 1802), 原續合誌序(김이재, 1824), 原續合誌跋(서희순, 1830 : 김이재 수정본의 간행 발문), 中京誌舊序(조병기, 1855), 續誌跋(조경하, 1881).

27) 『中京舊誌序』, 『중경지』, 『경기도읍지(7)』, 7쪽, “曹長淵臣俊, 年近八袞, 一鄉之遺老也. 有松都雜記, 參考古史, 間以謠俗, 余取觀之. 且披勝覽所載, 作爲此書.”

28) 김육의 글이 발문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소장 기호는 ‘一叢 古 915.12-S058j’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고, 한국인문과학원 편, 『조선시대 사찬읍지』 2에 영인되었다.

차 거두어 쓰고자 하였는데, 한 사람도 과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침내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등용하지 않았는데, 70여 년이 지난 뒤인 성종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停擧가 풀렸다.²⁹⁾

‘고적’이나 ‘산천’ 조에 신지 않은 것은 두문동이나 그와 연관된 지역이 터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물’ 조의 개별 항목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그 이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인물’조에서는 개성에 뛰어난 인물이 많았음에도 과거를 치를 수 없게 된 사정 때문에 등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서술되어 있을 따름이다. 요컨대 두문동에 개성 또는 고려의 충절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부여하지는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술된 내용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조선 왕조를 따르지 않으려는 개성 사람들이 두문동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종신토록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며, 둘째는 태조가 베푼 과거에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아서 개성 사람 전체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잃는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면으로는 두 가지 사건이 별도의 것으로 처리된 듯이 보인다. 비록 사건의 전후 관계가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 기사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17세기 중반 이전에 개성 지역에서는 두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구전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육은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서술을 할 수 있었을까. 김육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문에 주의하면 조신준의 『송도잡기』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曹臣俊(1573~?)은 조의생의 후손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개성에 대한 문헌들이 사라진 점을 안타깝게 여겨 스스로 책을 썼다고 한다.³⁰⁾ 『송도잡기』는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후대의 읍지 가운데 조신준의 글이 실린 예가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1782년에 유수 정창순이 간행한 것으로 알려진 『松都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

29) 『松都志』, 『조선시대 사찬읍지』 2, 한국인문과학원, 1989, 48쪽, “我朝開國之後, 鼎遷而南, 人不肯從, 至於擧一洞, 終身不出, 稱之以杜門洞. 太祖親御設科, 至誠開諭, 將滌除收用, 而無一人入試場. 遂停擧禁錮, 七十餘年, 至成宗朝, 始爲解停.”

30) 김택영, 『重編韓代松陽耆舊傳』 권1, 『김택영전집』 5, 아세아문화사, 556쪽.

4983)와 1882년에 간행된 『중경지』에는 ‘두문동’ 항목 가운데 별도의 제목 없이 “曹臣俊論略曰” 이하로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³¹⁾ 이 가운데 두문동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2] 우리 고을은 고려의 오백 년 옛 도움으로 도덕과 예법으로 길렀으니, 염치가 있는 곳이면 비록 배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지킨 바를 바꾸지 않는다. 회가 의생인 분은 나의 팔 대조인데, 고려 말에 입선미, 맹씨 성을 가진 분 등 70여 인과 더불어 서교에 은거하였다. 나라가 바뀌자 문을 닫고 절의를 지켰는데, 화를 입음에 미처서는 모두가 앞 다투어 목을 늘였다. 지금까지 두문동이라고 부른다. 비록 우리 조선이 참으로 어질고 은혜로우나 한결같은 법을 적용하여 배어 없애고 등용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100년 간 과거를 막은 것은 망한 나라의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통 사람과 같이 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략) 건국 초기에 법으로 몰아서 죽이고 금하고 누르는 것은 형세이다. 그렇지만 이미 평정된 이후에 그 마음을 논한다면, 신하가 되어서 충절을 본받는 이가 진실로 가상히 여겨 장려할 만한 것이다. (중략) 우리 태조께서 친히 과거를 베풀어서 지성으로 깨우쳐 흠결을 씻고 거두어 쓰고자 하셨으되, 한 사람도 과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그 몸은 욕되게 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은 굽힐 수 없고, 그 이름은 천하게 할 수 있으나 그 뜻은 꺾을 수 없었던 것이다.³²⁾

조신준은 조선 건국 직후의 상황이 망국민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고려 인물들의 입장에서는 마음[心]과 뜻[志]을 지켜야 하기에 은거하거나 죽임을 당할지언정 과거를 치르는 것

31) 정창순이 간행한 『송도지』는 1757년 유수 오수재가 편찬한 續誌와 그 이전의 읍지를 합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다루는 조신준의 글은 속지 부분에 실려 있다.

32) 『山川』, 『송도지』 권2, 『조선시대 사찬읍지』 2, 한국인문과학원, 1989, 228~229쪽, “本府爲麗氏舊都五百年, 休養生息道德齊禮, 其廉耻之所在, 則雖斬伐誅戮, 而猶不罷[能]變易其所守. 若其諱義生即余八代祖, 麗末與林先味·孟姓等七十餘人, 隱於西郊. 逮夫鼎遷, 閉門守節, 及其被禍, 莫不延頸爭先, 至今稱之以杜門洞. 雖以我朝之深仁厚澤, 不得不濟之, 以一切之法芟夷禁錮, 百年停舉, 使讐民子孫, 不得夷於平人. … 立國之初, 驅之以法, 殺死禁抑之者, 勢也. 既定之後, 尙論其心跡, 則爲臣效忠者, 固可嘉獎之不已也. … 我太祖親臨設科, 至誠開誘, 爲滌瑕收用之計, 而無一人入門就試, 其身可辱, 而其心不可屈, 其名可賤, 而其志不可挫.”

과 같은 행동은 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결국 조신준이 말하고자 한 바는 이미 나라가 안정된 지금에 와서는 건국 초와 같은 차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문동과 관련된 언급을 정리해 보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조의생, 임선미, 맹씨의 세 사람을 비롯한 70여 인이 서교에 은거하며 문을 닫고 절의를 지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이 기꺼이 칼날을 기다리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며, 셋째는 태조가 벼포 과거에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거 지역이나 은거 인원 등의 구체적인 서술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외하면, [1]과 견주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은거한 인물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부분이다. 앞을 다투어 목을 늘여서 칼날을 받았다고 했으니, 두문동에 은거했던 이들이 참혹하게 몰살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신준의 글이 김육의 읍지 편찬 이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육이 읍지를 편찬하면서 두문동의 인물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전되는 이야기의 한 부분은 제외하고 문헌에 정착시킨 셈이다. 앞서 살펴본 영조 대 이후 국가의 기록에서도 두문동 인물들의 죽음이 서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김육과 같은 서술 태도는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조가 개성을 방문한 1740년 이전의 글로 趙遠命(1675~1749)의 <杜門洞記蹟碑文>도 남아 있다. 이는 조원명이 개성 유수로 있었던 1728년에서 1730년 사이의 글로 추정되는데, 현재 『송도지』와 『중경지』를 비롯한 읍지들에 수록되어 있다. “두문동 72현”의 높은 절의에 대해 들었지만 터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 후손들을 통해 두문동의 자리를 찾아서 비를 세워 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72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했고 조의생과 임선미의 후손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한 두문동의 일화는 다음과 같다.

[3] 우리 조선이 천명을 받은 초기에 일흔 두 분이 가까이 귀화하지 않고 골짜기 밖에 문을 설치하여 닫아두고 열지 않았다. 과거를 보라는 명이 내리자, 채비를 갖추어 밖으로 나서면서 “나는 장사하러 가겠다.”라고 하였으며, 앞 다투어 피하여 달아나서 ‘殺身成仁’에 이르게 되었다. 뒷사람들이 그 고개를 일러 ‘부조’라거나 ‘괘관’이라 하였고, 그 마을을 일러 ‘두문’이라 하였다.³³⁾

[1], [2]에 견주어 보면, 과거를 피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두문동에 은거한 72인의 인물들이 “장사하러 가겠다(吾將行商)”라는 말로 과거를 회피하였다는 것이다.³⁴⁾ 또 은거의 상황과 과거 보기를 피한 상황을 직접 연관 짓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일 수 있다. “72현”이나 “부조현”, “괘관현” 등이 직접 언급된 점도 함께 차이점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이야기의 구조에서는 두문동 인물들의 죽음을 모호하게 처리한 점을 큰 차이로 들 수 있다. “殺身成仁”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벼슬길에 나가서 자신의 포부를 꺾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다. 다만 [2]에서 “화를 입음에 미처서는 모두가 앞 다투어 목을 늘였다(及其被禍, 莫不延頸爭先)”고 한 것과 같은 참혹한 상황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조선의 관리였던 조원명도 조선 건국 후에 두문동의 인물들을 죽였다는 내용을 받아들여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殺身成仁”은 이러한 생각을 담은 표현이 아닌가 추정된다.

1744년 글로 추정되는 개성유수 吳光運(1689~1745)의 <杜門洞記>에서는 두문동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소문들을 직접 다루면서 그 진위를 논했다.³⁵⁾ 오광운은 임선미의 후손을 만나보고 나서 이 글을 썼는데, 그 家乘에

33) 「산천, 『송도지』 권2, 『조선시대 사찰읍지』 2, 224쪽, “我朝受命初, 七十二子者, 不肯歸化, 設門於谷外, 閉而不開. 令赴學, 則執鞭而出曰, 吾將行商, 爭先走避, 以至殺身成仁. 後之人, 名其峴曰不朝, 曰掛冠, 名其洞曰杜門.”

34) 앞에서 살핀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7월 12일조의 기사 및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영조 대왕행장, 『국조보감』 권63의 영조 21년조에서는 영조가 두문동의 후예들이 장사치가 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소문이 조원명이 서술한 내용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실린 바가 세상에서 전하는 바와 거의 같았다고 했다. 두문동의 일화와 관련된 대목은 다음과 같다.

[4] 우리 태조가 천명을 얻으시고 장차 망국의 백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였는데, 태학생 등이 따르지 않았다. 寬仁하신 태조는 그들에게 죄를 더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고을에 오셔서 科場을 설치하시고 그들을 불렀다. 태학생들은 또 따르지 않았고, 함께 같은 마을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함께 죽었다. 혹은 불에 타 죽었다고도 하고 혹은 도륙당해 죽었다고도 하는데, 聖代에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필시 말을 전한 이가 망령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문을 닫아걸고 세상에 나오지 않은 채 죽었다고 한다면 옳은 말일 것이다.³⁶⁾

우선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자. 여기에도 은거와 과거 회피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선후관계가 달라졌다. 즉 원래 개성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태학생들에게 과거를 보였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았고, 이들이 모두 한 마을로 들어가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죽었다는 것이다. 과거 회피가 앞선 사건이고 은거가 그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72인이 모두 태학생의 신분이었다는 기술은, 이러한 구도와 잘 호응된다. 태조가 과거를 베풀기 이전에 고려의 관료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응하지 않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광운은 두문동 72현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망령된 것이라고 했다.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두문동 72현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문은 개성 일대에 퍼져 있었을 것인데, 오광운은 그러한 소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불에 타 죽거나 도륙 당해 죽는다는 것은, 조선의 창업과 정책에 반대한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살해를 의미한다. 이는 조선 왕조의 신하로서 오광운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소문이었을 것이다.

35) 오광운은 <海東樂府>를 지으면서 두문동을 다룬 시 1수도 포함시켰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渠知杜門死, 不知開門生. 相枕白骨箇箇香, 長與日月爭光晶. 落花芳草深深洞, 到此春風亦不情.”

36) 「산천」, 『송도지』 권2, 『조선시대 사찬읍지』 2, 224~225쪽, “我太祖誕膺天命, 將遷殷頑於洛邑, 太學生等不從. 太祖寬仁, 不加之罪, 親蹕是都, 設禮園以招之, 生等又不從, 相携入一洞, 杜門同死焉. 或曰焚死, 或曰戮死. 聖代豈有是耶. 必傳之者妄, 而要之乎杜門而死則是也.”

홍명희가 논평한 바와 같이 오광운이 교묘하게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한 것 일 수도 있겠지만,³⁷⁾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³⁸⁾ 다만 두문동 72현의 최후에 대한 일화 유형으로서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임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

[2]에서 언급하고 [4]에서 부정한 바와 같은 두문동 72현의 참혹한 죽음을 다룬 예는 흔치 않지만, 고려 백성들의 은거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더 찾아볼 수 있다.³⁹⁾ 다음은 『송도지』에서 ‘두문동’ 항목 끝에 붙은 사례 가운데 일부를 뽑은 것이다.

[5-1] 보봉산의 북쪽 10리 쯤 되는 곳에 또 ‘두문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조가 바뀐 이후에 고려의 무신 48명이 이곳에 숨어 들어와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함께 죽기를 맹세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洗身井이나 會盟臺와 같은 명칭이 남아 있다. 이들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5-2] 성거산 아래에 팔관시동이 있다. 고려의 신하 8인이 함께 이곳에 숨었는데, 먼저 자신들의 처자를 죽이고서 땀감을 쌓아놓고 스스로 불 질러 죽었다고 한다. 이는 세속의 노래에 전하는 바인데, 그 이름과 장소는 전하지 않는다. (혹은 두문동 안에 있다고도 한다).

[5-3] (차간의동으로부터) 서쪽으로 5리 쯤 되는 곳에 궁녀동이 있다. 곧 고려 때 궁녀들이 自靖했던 곳이라고 전한다.⁴⁰⁾

37) 홍명희, 앞의 논문, 150~151쪽.

38) 김택영은 두문동 태학생들의 행동을 捲堂에 비견하면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임선미 등 이름이 전하는 세 사람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 와전되었다고 해석했는데, 72현 모두가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죽임 자체는 있었다는 뜻이 된다. 김택영, 『林先昧·曹義生·孟氏』, 『崧陽耆舊傳』(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4156) 권1, 15a~15b.

39) 과거를 거부한 인물들이 넘어갔다는 고개인 부조현이나 부조현을 넘어 달아나던 사람들이 갓을 걸어두었다는 폐관현에 얽힌 지명 설화도 읍지류에서는 나타나는데, 이는 두문동 72현 관련 일화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 회피’에서 ‘두문동 은거’를 연결 짓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0) 「산천」, 『송도지』 권2, 『조선시대 사찬읍지』 2, 230~232쪽, “寶鳳山北十里許, 又有所謂杜門洞, 俗傳革世後, 麗臣四十八將, 遷入此洞, 洗身澡潔, 誓以同死, 至今有洗身井·會盟臺之稱, 而姓名不傳. 聖居山下, 有八剎寺洞, 麗臣八人, 共匿此洞, 先殺妻子, 積柴自焚死, 此出於謠俗所傳, 而姓名及處所, 俱不傳[或云在杜門洞中]. … 西距五里, 有宮女洞, 卽麗時宮女自靖處云.”

[5-1]은 동쪽에 있는 또 하나의 두문동이라는 의미에서 ‘동두문동’이라고도 흔히 알려진 곳에 대해 서술하였다.⁴¹⁾ “함께 죽기를 맹세했다(誓以同死)”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5-2]는 8명의 관리가 함께 자결한 고사를 담은 팔관시동을 서술하였다. 자신의 손으로 먼저 처자를 죽이고, 이어서 스스로 분신하여 자결하였다고 했다. 함께 은거하게 된 경위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장엄한 최후의 장면을 담은 일화라고 할 만하다. [5-3]은 궁녀동의 유래를 서술하였는데, “自靖”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결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하다. 고려의 멸망과 함께 궁녀들도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5]의 세 가지 일화는 고려 충신들의 죽음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 비록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에서처럼 타의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내용은 없다. 읍지의 기록이 원래의 일화를 변개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결과가 장엄한 죽음을 형상화하는 데 이르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⁴²⁾

읍지에서 볼 수 있는 두문동 관련 일화들이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살핀 바에 의한다면, 두문동 72현을 비롯한 고려의 충신들이 살해당했다는 내용은 약화되거나 배제되는 형태로 변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살해당한 것인지 아니면 은거한 채로 삶을 마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살해당했다는 설화가 존재하고 전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제되거나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읍지 이외의 문헌에 수록된 두문동 72현의 일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⁴³⁾ 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은 “조선 왕조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고려 충신의 형상”이라 할 수

41) 김택영, 「武士四十八人」, 『송양기구전』(奎4156) 권1, 17a~17b에서는 이에 대해 서술하면서 위치가 잘못 기술되었음을 지적하였다.

42) 충신의 죽음을 그린 이야기에서 살해보다는 자결의 요소가 더 극적일 수 있다.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몽주의 일화에서도 자결에 가까운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살해당할 곳으로 가는 등의 설정을 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43)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이익의 『성호사설』, 성대중의 『청성잡기』 등에 수록된 두문동 72현 관련 일화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관련 가문에서 펴낸 문집 가운데는 살해의 요소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있을 것이다.

4. 詩材로서의 두문동 일화 수용의 의미

두문동과 관련된 일화는 시의 소재로도 활용되었다. 두문동 재조명의 계기가 된 1740년 이후의 것이 다수이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의 작품으로 알려진 예도 있다. 玉晉輝(1572~?)는 오언시와 칠언시 1수씩을 남겼는데, 다음은 그 가운데 칠언시이다.

옛 나라 성 서쪽 마을 하나 있으니
 옛 사람 살던 터 지금까지 남았네.
 출관하는 노자가 어찌 운수를 헤아렸겠나,
 바다로 떠난 전횡 또한 논하지 마오.
 수양산 속은 은나라의 세월이요
 심양강 굽이는 진나라의 천하라.
 몇 번이나 군자들을 탄식하게 하였던가.
 맑은 향기에 예 올리고 구원에 조문하네.
 故國城西別一村， 昔人遺址至今存。
 出關老子何須數， 入海田橫且莫論。
 雷首山中殷日月， 溟陽江曲晉乾坤。
 幾教君子興長喟， 揖罷清芬弔九原。⁴⁴⁾

개성 서쪽의 두문동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로부터 시상을 일으켜서, 과거의 인물들을 떠올려 두문동의 유래를 더듬어갔다. 頡聯에서는 태어나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노자와 전횡을 언급하고, 頸聯에서는 은거 생활

44) 「題詠」, 『중경지』 권7, 『경기도읍지(7)』, 582쪽. 『송도지』에는 ‘山川’ 조에 수록되어 있다. 홍명희는 칠언시를 <西杜門洞律詩>라는 제목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읍지에서는 별도의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읍지에 함께 수록된 오언시는 다음과 같다. “忽得名洞義，杜門蓋有因。羣賢龜息處，聖主龍飛辰。曆數歸周武，綱常繫晉臣。閑愁驢背客，過山式芳塵。”

을 했던 백이와 숙제, 그리고 潯陽三隱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들의 삶에서 포착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렇다면 옥진회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은거했던 점에 주목하여 두문동의 은사들을 그려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언시에서는 “여러 현인들 신선처럼 쉬던 곳ियो, 성군이 용처럼 날아오르던 때라(羣賢龜息處, 聖主龍飛辰)”는 표현으로 두문동의 과거를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은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옥진회는 여러 고사를 들어서 두문동을 말하였지만, 이 가운데 백이와 숙제의 고사는 후대의 작품에서도 자주 활용되었다. 다음은 蔡濟恭(1720~1799)의 <杜門洞歌>이다.

그윽히 우리 마을은 깊고
 고요히 우리 문은 닫혔네.
 문 앞에 큰 길 있으니
 한강 굽이로 흘러간다 하네.
 한강 가 삼각산 아래
 크게 선 새 궁궐 높기도 하구나.
 그 아래 집은 천 채 또 만 채
 벼슬아치 남으로 가서 배례하네.
 성인이 위에 있어 해와 달은 빛나는데
 물고기 비늘처럼 뽁뽁하게 권세를 다투네.
 내 벼슬을 싫어함이 아니요,
 내 흥망에 어두움도 아니라.
 모름지기 내 좋은 것 좇으며 살아야지,
 손잡고 함께 떠나 세상살이 마치려네.
 어찌 서울 큰 거리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이
 허술한 집에서 문 닫고 지냄만 못함이 없겠나.
 백 년 동안 깊숙한 문을 나서지 않았고
 자손은 흩어 보내 장사치를 만들었네.

이제 두문동은 보이지 않건만
 푸른 산엔 해마다 봄 고사리 푸르네.
 幽幽我洞邃, 寂寂我門閉.
 門前有大路, 云走漢水沍.
 漢水之上三角下, 新闢大起何迢遞.
 其下千家復萬家, 衣冠南去拜玉砌.
 聖人在上月日華, 魚鱗雜襲爭權勢.
 我非惡簪笏, 我非昧興替.
 人生且須從吾好, 携手同車聊卒歲.
 豈無朱門入天衢, 不如閉却吾門繩爲樞.
 百年門深不出脚, 分遣子孫爲賈客.
 不見至今杜門洞, 青山歲歲春薇綠.⁴⁵⁾

채제공은 1764년(영조 40)에 개성 유수를 지냈다. 이미 영조가 두문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한 이후에 그 곳의 수령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두문동가>는 두문동에 대한 다양한 일화를 접하면서 쓴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면, 두문동에 은거한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 작품이 전개된다. 때문에 두문동에 은거하게 된 이들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이는 채제공이 짐작한 바의 것이겠지만, 유적을 둘러보고 일화를 듣거나 읽어 가면서 얻은 감상일 것이다.

처음 두 구에서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두문동의 모습을 제시한 뒤에, 3~10구에서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한 시점의 개성과 서울의 상황을 대비시킨다. 새로운 도읍으로 옮기라는 명이 내렸을 때 개성의 고려 백성들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서울로 가는 길이 바로 앞에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화려한 도회의 큰 집에 살거나 때로는 뛰어난 임금을 모시고 벼슬을 할 수도 있다. 몸은 개성에 있지만, 머릿속의 상상은 한강과 삼각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새로운 도읍에 가 있는 것이다.

11~18구에서는 갈등을 벗어나서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세상 돌아가는

45) 「杜門洞歌」, 『樊巖先生集』 권10, 『한국문집총간』 235권, 199쪽.

이치야 뻔해서 어떤 길이 자신에게 이로울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 편히 사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뜻이 맞는 이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 은거하기로 하고 정든 집을 나섰고, 그곳에서 함께 평생을 마치기로 결심한다. 자신들은 백 년 동안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손들은 벼슬길에 대한 관심을 끊어 버린다. 자신 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세상의 정치와 단절하는 삶을 기대한 것이다.

마지막의 두 구에서는 다시 현실의 두문동 터로 돌아온다. 이미 300여 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두문동은 마을의 모습은 사라지고 터만 남았다.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은 봄마다 새롭게 돌아나는 고사리뿐이다. 고사리는 수양산으로 들어간 백이와 숙제가 캐먹던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한 고사리는 두문동의 인물들과 백이·숙제를 연관 지어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여기서 체제공은 백이·숙제의 고사를 끌어옴으로써 두문동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시에서 묘사된 바를 앞서 살펴본 두문동 72현의 일화에 견주어 본다면, 은거의 이미지가 강화된 만큼 저항의 이미지는 약해졌다고 지적할 수 있다. 태조가 벼슬 과거를 회피한 일도 함께 거론하지 않았다. 두문동 인물들의 생애를 은거로 종신한 것으로 그렸으니, 집단적으로 살해당했다는 등의 소문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체제공이 두문동 인물들의 자손에 대해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은거의 이미지를 보다 강렬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卞鍾運(1790~1866)의 <杜門洞>에도 자손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두문동 안에는 풀이 무성한데
서풍의 석양빛은 오로지 처연하네.
그때 함께 돌아간 이 일흔 사람 선비요,
외로운 절개 우리른 지 오백 년이라.
만약 백이·숙제가 자손을 남겼더라도
대대로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지는 않았으리라.
杜門洞裡草芊芊, 西風殘照一愴然

當時同歸七十士, 孤節景仰五百年.
假使夷齊遺子孫, 未必世世採薇首陽巔.⁴⁶⁾

변중운은 고려 충신들이 은거한 두문동을 백이와 숙제가 은거한 수양산과 대비시키되, 차이점 또한 있음을 지적했다. 채제공은 후손들이 장사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변중운은 대대로 고사리를 캐면서 두문동에 은거했다고 했다. 백이와 숙제의 고사가 아름답지만 대대로 은거한 두문동의 고사는 그보다 더 아름답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변중운 또한 은거의 관점에서 두문동을 평가한 셈인데, 채제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살해나 저항의 요소는 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李匡師(1705~1777)는 유배시절 동안 <東國樂府> 30편을 지어 우리 역사를 시에 담은 바 있는데, 아들인 李畧(1740~?)이 같은 제목으로 화답한 바 있다.⁴⁷⁾ 여기에 두문동이 포함되어 있으니, 부자가 모두 두문동에 대한 작품을 남긴 셈이다.⁴⁸⁾ 이광사와 이영익의 작품에는 “고려가 망하자 문을 닫아걸고 절개를 지킨 마을이 있었다. 그 이름은 두문동이다(高麗之亡, 有一洞杜門守節. 名曰杜門洞.)”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다음은 이광사의 <杜門洞>이다.

문은 비록 닫혔으나
대의는 만고에 밝도다.
옛적으로는 수양산이요,
당세로는 선죽교로다.
門雖杜, 大義萬古昭.
古時首陽山, 當世善竹橋.⁴⁹⁾

46) 『杜門洞』, 『歎齋詩鈔』 권1, 『한국문집총간』 303권, 12쪽.

47) 신장섭, 『동국악부를 통한 圓嶠와 信齋의 역사 인식 고찰』, 『우리문화연구』 22집, 우리문화회, 2007 참조. 신장섭은 이광사와 이영익의 역사 인식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논하였는데, <두문동>의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를 논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48) 이광사의 아들인 이극익(1736~1806) 또한 『연려실기술』에 두문동에 대한 기사를 남겼다.

49) 『圓嶠集選』 권1, 『한국문집총간』 221권, 441쪽.

동국악부의 다른 작품에 비해 길이는 짧지만, 이광사는 강렬하게 두문동의 의미를 표현했다고 할 만하다. 大義를 밝혔다는 점에 두문동의 의미가 있음을 내세우고, 과거 백이·숙제와 비견될 만한 사람으로는 정몽주가 있다고 했다. 두문동 인물들의 심정이나 상황 등과 같은 것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두문동의 의미를 난초에 비유한 이영익의 5언 10운의 시보다 더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 준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⁵⁰⁾

두문동을 정몽주의 선죽교와 대비시킨 사례는 이미 영조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읊은 <駐駕不朝峴感古事>에서도 확인할 수 있거니와, 다른 작품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서녘으로 송악산 하늘에 맞닿은 곳
오백 년 전 왕씨의 조정 있던 곳
운이 다하니 산천은 고요해졌고
가을 맞으니 초목 또한 쓸쓸하네.
오가는 이 어지러이 두문동을 말하고
마을 늙은이 아직도 선죽교를 전하네.
그대 가거든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아침 풍물은 전날 밤과 다르리니.
西望松嶽接雲霄, 五百年前王氏朝.
運去山川從寂寂, 秋來草木亦蕭蕭.
行人漫說杜門洞, 故老猶傳善竹橋.
此去君休悲感劇, 今朝風物異前宵.⁵¹⁾

任憲晦(1811~1876)의 <臨湍途中, 送李晦授鍾直之松京>이다. 개성을 찾아가는 이에게 준 증별시인데, 그 속에 고려의 옛 도읍으로서의 개성의 이

50) 「杜門洞」, 『信齋集』, 『한국문집총간』 252권, 412쪽.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鬱鬱巖下蘭, 甚與陽春疏。雖有滿谷香, 寂寥無所須。有客爲之悲, 謂蘭一何愚。蘭爲物性芳, 每被君子譽。上薦后妃佩, 下充王公裾。蘭心獨辛苦, 不與人意如。採佩豈不好, 本性或移渝。移渝遂彫萎, 蓬蒿或不殊。芳香我自有, 鬱鬱何損予。請客且歸去, 歸去莫停車。”

51) 『臨湍途中, 送李晦授鍾直之松京』, 『鼓山先生文集』 권1, 『한국문집총간』 314권, 12쪽.

미지를 그려 내고 있다. 顯聯에서 제시한 두문동과 선죽교는 풍경이 아닌 이야기의 대상이다. 고려의 옛 도읍에서 아직도 구전된다고 여길 만큼, 고려 말의 상황이나 기상을 대변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정몽주가 마지막 흔적을 남긴 선죽교가 지닌 상징성은 대단한 것이었으므로, 두문동이 그와 같이 언급될 만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⁵²⁾

고려를 회고하는 작품에서 선죽교와 함께 두문동이 언급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둘 모두 망국의 순간에 있었던 사건이며, 충절이라는 대의에 들어맞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적인 세계관에서 절의를 형상화하는 데 적절한 소재인 셈이다. 다만 이때의 충절은 저항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때 두문동의 참혹한 죽음 같은 소문은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기보다는 문헌이나 구전을 통한 전승이 약화되거나 단절되었을 것이다.

한편 두문동을 소재로 한 시 가운데는 두문동에 대한 부가적인 일화를 포함하는 예도 보인다. 읍지에서의 일화 수용을 다루면서 언급했던 동두문동 이야기를 다룬 김택영의 <東杜門洞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동두문동가>는 김택영이序에서 밝히듯이 『중경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섬세한 인물 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화의 전반적인 내용이 읍지에 실린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런데 俞漢鵠(1732~1811)의 1775년 작인 <廣韓賦>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일화들과는 다른 내용을 다루었다. 이 작품은 시구 아래에 주석을 달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그 주석에 포함되어 있다. <광한부>에서 두문동에 대한 구절은 “저 두문동의 사람들은 함께 자취 감추어 삶을 마쳤네(彼杜門之洞人, 亦屏跡而終世)”인데, 그 아래에 붙인 주석에서는 “왕조가 바뀐 뒤에 여러王氏들이 서로 이끌고 송경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평생을 마쳤다. 뒷사람들이 이곳에 두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革命後, 諸王

52)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李晩用(1792~?)의 <滿月臺>와 변중운의 <松都懷古>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는 망국의 도읍 개성을 형상화하는 데 두문동을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였다.

氏相率入松京深谷中,以終其身.後人名之曰杜門洞.)”⁵³⁾라고 기술했다.

“여러 왕씨(諸王氏)”라면 망한 나라 고려의 왕족이라는 뜻이 된다. 고려의 신하 또는 고려의 태학생이 은거한 것이 아니라, 왕족들이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거는 대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 된다. 피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에 주의한다면, 시의 본문 또한 망국의 설움 정도의 뜻으로 해석된다. 유한준이 두문동의 유래를 이처럼 인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두문동 그리고 고려 망국의 시점에 대한 또 다른 이해 방식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두문동의 여성들을 다룬 작품도 보이는데, 이 또한 읍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이광사와 이영익이 동국악부에서 읊은 <女戴笠>과 成海應(1760~1839)의 <女戴笠行>이 전한다. 이 작품들은 각기 序를 붙였는데, 이영익의 서문은 이광사의 것과 같다.

[6] 고려가 망하자 대대로 벼슬한 거족들은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그 집안의 여성들은 모두 대나무 삿갓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지금도 그 유풍이 남아 있다.⁵⁴⁾

[7] 고려왕조가 이미 바뀌자, 우리 태조께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셨다. 고려에서 벼슬하던 가문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오고자 하였지만, 일흔 두 집이 기꺼이 따르려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로 이끌고 두문동으로 들어갔는데, 울타리를 둘러치되 문은 만들지 않았다. 이들은 구리 그릇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다. 매번 그릇이 완성되면 가격을 써서 울타리 밖에 던져두었는데, 살 사람은 바로 값을 치르고 갖고 가곤 했다. 부녀자들은 대나무 삿갓을 쓰고 하늘을 보지 않았다. 그 마을은 송도 서쪽 6리쯤에 있었다.⁵⁵⁾

53) 『廣韓賦』, 『自著』 권1, 『한국문집총간』 249권, 11쪽.

54) 『女戴笠』, 『圓嶠集選』 권1, 『한국문집총간』 221권, 440쪽, “松都之亡, 簪纓世族, 降在阜隸. 其女子皆戴笠行路, 不得見其面. 至今遺風尚在.”

55) 『女戴笠行』, 『研經齋全集』 권1, 『한국문집총간』 273권, 15쪽, “麗朝既革, 我太祖移都漢陽, 將與衣冠舊族偕來. 其七十二家不肯也, 相率入杜門洞, 設籬環之而不設門. 鍊銅器自食, 每器成, 書價投籬外. 買者即償而取去. 婦女戴竹笠不見天. 洞在松都西六里.”

[6]에서는 고려에서 대대로 벼슬하던 이들이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다고 했고, [7]에서는 태조가 고려에서 벼슬하던 이들을 한양으로 이주시키려 했는데 72호의 집이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6]이 망국의 일반적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면, [7]은 앞서 다룬 [1]과 [4]와 유사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72명이 72호의 집으로 바뀐 것은, 태학생이 아닌 벼슬아치가 은거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72명의 벼슬아치가 자신들의 가족을 이끌고 함께 은거한다면, 곧 72호의 집이 두문동으로 들어갔다는 서술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7]에서는 은거한 사람들이 구리 그릇을 만들어 팔아서 은거 생활을 이어 갔다고 했고, [6]과 [7]에서는 모두 두문동에 은거한 여성들이 대나무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했다. 전자는 두문동 72현의 자손들이 상인이 되었다는 소문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의 경우는, 맥락에 차이는 있지만 읍지에서조차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여인들 가운데는 정숙하며 지조를 지키는 이들이 많다. 비록 여항의 지체 낮은 이라도 개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출입할 때는 반드시 대로 만든 삿갓을 쓰는데, 손으로 잡고 끈을 달지 않는다. 피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삿갓을 기울여서 얼굴을 가린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댁’이라고 칭한다. 머리에 는 기름을 바르지 않고 얼굴에는 지분을 바르지 않으니, 소박함이 칭송할 만 하다. 정절 또한 특출하니, 이런 까닭에 여자 홀로 사는 집이 매우 많다.⁵⁶⁾

개성의 풍속을 서술한 부분인데, 절개를 지키는 여성이 많다는 점을 칭송한 것이 그 핵심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양상으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행실을 조심하고 외모를 꾸미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이 출입할 때 삿갓을 쓰는 풍속이 있음을 말하였다. 여기서는 그러한 풍속의 유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특정한 계층

56) 「風俗」, 『송도지』 권2, 『조선시대 사찬읍지』 2, 179쪽, “女人多以貞潔自守, 雖閭里下賤, 恥於改嫁, 出入必戴簪笠, 手執不纏, 人有當避, 則傾而遮之, 相語之際, 稱號以宅, 髮不膏沐, 面不脂粉, 朴素可嘉, 貞節亦奇, 以此獨女之戶甚多.”

이나 집단의 풍속으로 한정짓지도 않았다. [6]과 [7]에서는 그것이 두문동의 은거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따라서 원래는 두문동에 한정된 풍속이었다고 했다. 여성이 샷갓을 쓰는 풍속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한 셈이다.⁵⁷⁾

이제 두문동의 여성들을 시에서는 실제 어떻게 그려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성해응의 <女戴笠行>이다.

츄츄한 대나무샷갓 쓴 사람
 이르길 고려 여자라 하네.
 긴 갓은 얼굴 덮으니
 스스로 해를 가렸네.
 여인께 묻노니 어찌하여
 일흔 두 집은
 긴 울타리로 안팎을 갈라서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이웃집끼리만
 소곤소곤 고초를 호소하는가.
 예전에 우리 집은 벼슬을 살아
 더할 바 없는 큰 가문이었지요.
 장부는 나라의 권력을 잡고
 젊은이는 궁궐에서 시위했지요.
 아녀자는 규중 규범을 지키고
 언제나 傅姆가 인도했었죠.
 진주와 비취로 맘껏 꾸미고
 얇은 비단 옷을 입었지요.
 어찌다가 하루아침에 천한 몸이 되어
 몸이 노비의 거처에 떨어졌는지.
 얼핏 들으니 정몽주 공께서 돌아가셨고

57) 『동사강목』에서는 두문동의 유래를 서술한 뒤에 여성들은 출입할 때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나무샷갓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광사나 성해응이 서에서 서술한 바와 유사하다.

궁궐엔 가장만 자란다고 하네요.
 또 듣건대 우리 고려의 왕씨들은
 섬에서 나란히 죽었다지요.
 우리를 한양으로 몰아간다고 하는데
 한양은 어떤 곳이던가요.
 듣건대 집안 어른신께선
 죽더라도 떠나지 않겠다 하시니
 여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또한 힘껏 막고자 할 따름이지요.
 죽이거나 유배시키지 않고
 들관에서 늙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다만 새 왕조의 덕을 읊조리지만
 맑은 이슬 같은 눈물 떨어지지요.

戢戢戴竹臺, 云是高麗女. 簷長覆其面, 自與天日阻.
 借問娘底爲, 七十二家許. 長籬隔內外, 不得聞言語.
 但知東西宮, 呢呢訴苦楚. 吾家昔仕宦, 門戶無與巨.
 丈夫操國成, 少者侍禁籟. 婦女守閨則, 動必須傅姆.
 粧飾厭珠翠, 被服薄羅紵. 胡爲一朝賤, 降身充阜圉.
 側聞鄭公死, 宮闈生禾黍. 又聞我諸王, 駢首死島嶼.
 驅我詣漢陽, 漢陽是何處. 聞說家丈人, 抵死不欲去.
 女心何所識, 亦欲事力拒. 不被誅與謫, 得以老田墅.
 只誦新朝德, 有似零露漙.⁵⁸⁾

1~10구에서는 고려 여자라 일컫는 여성을 만나 마을의 유래를 묻는 장면을 그렸다. 촘촘한 대나무 샛갓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은 하늘의 해를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무엇 때문인지 밝혀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고려 여자’라고 말하는 데 그 답이 담겨 있는 셈이다. 그가 사는 마을의 일흔 두 집은 말소리조차 울타리 밖으로 새어나

58) 『여대립행』, 『연경재전집』 권1, 『한국문집총간』 273권, 15쪽.

오지 않는다.

11구 이하에서는 여성의 대답이 이어진다. 과거, 즉 고려 시대에는 대대로 벼슬을 살던 가문이어서, 남녀 모두 높은 지위를 누렸다고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한 신세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여성의 발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한 답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정몽주와 여러 왕씨들은 죽임을 당했고 궁궐은 황폐해졌으며 자신들은 한양으로 옮겨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집안에서는 죽을지언정 개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다행히 죽임을 당하지 않은 채 은거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려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성해응이 그려낸 두문동은, 충절의 고결함보다는 망국의 한에 초점이 놓인 것처럼 보인다. 여성 화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문의 어르신[家丈人]의 뜻에 따라, 한양으로 옮기지 않고 들판에 남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응하지 않은 태학생의 일화가 아닌 대대로 벼슬한 고려 명문거족의 운명이 두문동의 이름 아래 그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두문동의 일화는 백이·숙제나 정몽주에 비견된 작품들과는 달리 은거나 충절의 의미는 약해진 형태로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시 작품에서는 은거를 통해 충절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형태로 두문동 72현의 일화를 수용한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선 왕조의 이주 정책에 반발했다거나 조선에서 특별히 베푼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대목조차 거론하지 않거나 약화시켰다.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한 사례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망국이라는 상황 자체의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두문동 인물들의 자결이나 살해와 같은 요소는 다루지 않았다.

5. 결론

본고에서는 고려의 망국과 함께 은거한 두문동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선 후기에 와서 재조명된 경과를 살피고, 읍지에 수용된 일화의 내용과 시의 소재로 활용된 일화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두문동의 인물들이 살해당하는 것과 같은 요소가 약화되는 한편으로, 조선 왕조에서 수용할 만한 충신의 형상이 갖추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두문동의 일화를 백이·숙제, 정몽주 등과 대비하면서 은거와 충절의 이미지로 그려낸 시가 많은 반면, 일부에서는 이 일화를 고려의 망국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소재로 활용한 예도 찾을 수 있었다.

두문동은 오늘날 널리 알려진 사적은 아니다. 적어도 정몽주의 선죽교와 비교하면, 고려의 충절을 대표하는 사적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선 왕조의 이주 정책에 반발했다거나 조선에서 특별히 배훈 과거에 응하지 않았거나 하는 행동은 절의의 형상으로 주목할 만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은거하는 데 머물렀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을 듯하다. 자결하거나 살해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약화된 것도 여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논설 가운데 세상일을 방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두문동주의”로 비난한 예가 있는 것을 보면,⁵⁹⁾ 근현대로 전환하는 시기에 두문동에 대한 평가나 해석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살핀 두문동 일화의 재발견의 경과와 수용의 양상 및 특성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두문동 관련 가문의 재발견을 위한 노력이나 일제강점기 이후의 재해석의 시각까지 고려한다면, 두문동 일화에 대한 검토는 일화 수용의 양상이나 특성에 있어 더 넓고 세밀한 부분까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59) 「소년병학교로 올지이다, 『국민보』, 1914년 3월 21일자 ; 「救心論, 『독립신문』, 1922년 4월 15일자 ; 「우리나라 英雄에 對한 民間童謠, 『독립신문』, 1924년 3월 29일자.

참고문헌

1. 자료

- 『鼓山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314권)
『樊巖先生集』(『한국문집총간』 235권)
『松都志』(『조선시대 사찬읍지』 2, 한국인문과학원, 1989)
『松都誌』(『조선시대 사찬읍지』 2, 한국인문과학원, 1989)
『崧陽耆舊傳』(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4156)
『承政院日記』
『信齋集』(『한국문집총간』 252권)
『研經齋全集』(『한국문집총간』 273권)
『圓嶠集選』(『한국문집총간』 221권)
『朝鮮王朝實錄』
『中京誌』(『경기도읍지(7)』,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歎齋詩鈔』(『한국문집총간』 303권)

2. 논문

- 구분옥, 「두문동 72현과 송은 구흥의 절의정신」, 『퇴계학과 한국문화』 37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5, 321~353쪽.
김정자, 소위 '杜門洞 72賢'의 정치성향, 『釜大史學』 15·16합집, 1991, 349~374쪽.
김정자, 「두문동 72현의 선정인물에 대한 검토」, 『釜大史學』 22집, 1998, 95~117쪽.
신장섭, 「동국악부를 통한 圓嶠와 信齋의 역사 인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22집, 우리문화회, 2007, 117~147쪽.
홍명희, 「杜門洞史蹟」, 『현대평론』 제2호, 1927, 148~151쪽.

A Study on Anecdote of Tumun-dong 72 Loyalists

Hwang, Jae-moon

In this paper, I observed the progress of rediscovering the story of Tumun-dong (杜門洞) 72 Loyalists and investigated the feature of accepting that story as a subject matte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umun-dong 72 loyalists were said to be patriots for Koryo dynasty, and they were retired to hermitage in the remote mountain against new dynasty Joseon in the time of Koryo's ruin.

Their stories were reilluminated by King Youngjo of Joseon. He visited Gaesung, the capital of Koryo, in 1740, and heard the case of Tumun-dong 72 loyalists. And then he visited their retirement site, recited a poem for praising the loyalties with his 12 young subjects. Though it is possible that this affair was an intentional or precalculated conduct, it is certain that the event by King Youngjo was a beginning of spreading the story in wide areas.

Meanwhile, in Gaesung, tales about Tumun-dong 72 loyalists were handed down in the form of oral literature before 1740. It could be presumed that tales handed down in Gaesung area had been some different versions. But some of them had been excluded or denied by the editors of town chronicles, and probably intentionally. So anecdotes published in town chronicles are characterized as a loyalist story admitted in Joseon dynasty, because the excluded motif in these case were tragic death forced by meritorious retainers at the founding of Joseon dynasty.

In the case of poems, anecdotes about Tumun-dong 72 loyalists were described as a symbol of peaceful retirement or noble fidelity. In some poems 72 loyalists were compared with Baiyi(伯夷) and Shuqi(叔齊), symbolical recluses and loyalties in premodern east asian culture, but in those works their death had not been mentioned. So tragic factors expressed some versions handed down in Gaesung area were not expressed in those poems.

Keyword : Tumun-dong 72 loyalists, loyalty, retirement, King Youngjo,
anecdote

접수일자: 2012. 3. 31
심사기간: 2012. 3. 31~2012. 5. 20
게재결정: 2012. 5. 20